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0호 [루게 제24643호] 주제 103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풍  
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또다시  
현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마원춘 동지,  
김정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  
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건설을 발기하시고 두차  
레나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명  
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었  
으며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신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5월 연풍과학자휴양  
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휴  
양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기  
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데 대한 귀중  
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최상최  
대의 믿음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에서 세인을 놀  
래우는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시작이  
절반이라고 벌써 완공된 연풍과학자휴  
양소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  
온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결사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하고있는 조선인



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역  
시 다르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풍과학자휴양소  
를 후세에 길이 남을 창조물로 일떠세  
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봉  
사소, 휴양각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  
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

들이 당의 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  
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  
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데 대  
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정서와 미감  
에 맞게 새로운 형식으로 건물들을 일  
떠세웠을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휴양각과 여러  
봉사시설들을 고급호텔수준으로 꾸리  
고있으며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다

용도야외운동장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  
설하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  
휴양소건설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  
은 내외부시공을 비반복적이면서도 독  
특하게 하고있는것이라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건물들사이에 외랑을 설치함으로  
써 휴양소를 하나로 통일시킨것도 특  
색있으며 건물지붕과 벽타일의 색깔  
은 물론 건물기둥에 붙인 석재도 품위  
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  
양소는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 독창

성, 편리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경지  
에서 실현할데 대한 당의 건축  
미학사상이 집대성되어있는 건  
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수준  
에서 갖춘 휴양소가 완공되면  
과학자들이 무척 좋아할것이  
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과학연구사업으로  
쌈쌈던 피로를 풀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  
과 인제에 대한 올바른 관  
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  
서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연  
풍과학자휴양소와 위성과학자  
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  
자살림집까지 일떠세우면 우  
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을 온 세상에 힘있게 파  
시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  
휴양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휴양소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  
들과 비품들, 기자재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지열냉난방체  
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잔디와 관  
상용꽃목심기 등 휴양소주변과 호  
안정리를 잘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  
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성, 편리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경지  
에서 실현할데 대한 당의 건축  
미학사상이 집대성되어있는 건  
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수준  
에서 갖춘 휴양소가 완공되면  
과학자들이 무척 좋아할것이  
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과학연구사업으로  
쌈쌈던 피로를 풀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  
과 인제에 대한 올바른 관  
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하시면  
서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연  
풍과학자휴양소와 위성과학자  
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  
자살림집까지 일떠세우면 우  
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을 온 세상에 힘있게 파  
시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  
휴양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휴양소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  
들과 비품들, 기자재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지열냉난방체  
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잔디와 관  
상용꽃목심기 등 휴양소주변과 호  
안정리를 잘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  
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비등된 없이 밀고나감으로써 연풍과학자휴양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신 전 투과업을 빛나게 수행 하고 열의에 맞게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 소를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공의 자랑찬 보고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 10일 옥 힘있게 벌리며 건설공사를 립체 안겨주자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 드릴 불타는 결의에 충당되어있었다. 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진, 섬멸전의 방법으로 계획대로 드림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건설장에 또다시 하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리희회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가 남긴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을 이어 통일애국사업에 계속 앞장서나가기를 바랍니다.

김 정 은  
주제103(2014)년 8월 18일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전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보내신 화환이 17일 유가족에게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에게 정확히 전달하였다. 화환의 명기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여>, <김정은>이라고 쓰여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에 즈음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김양건동지가 정확히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김양건동지가 정확히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김양건동지가 정확히 전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 성원들이 감사편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자동차행진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신것과 관련하여 16일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 성원들이 감사편지를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께 올린 편지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하였다. 지난 8월 8일 자동차행진단의 모든 성원들은 조로국경인 두만강을 건너 우리 민족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떠나갔던 력사적인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커다란 기쁨과 행복감에 휩싸여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를 올리였습니다. 우리는 자동차행진단의 첫 로정으로 조선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혁명적의 자취가 아로새겨져있는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백두산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의 세 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근 1500km 구간을 달려 라진, 청진, 함흥 등 조국의 여러 도시들을 경유하는 파격에 자동차행진단 전 성원들은 어디 가나 정갈하게 가꾸어진 토지에서서 주렁주렁 익은 사과와 배를 따먹고 난달들과 아득히 빨간 파 수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행진단기간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를 뜨겁게 환대해주는 평범한 사람들과 군인들의 밝은 모습에서 조국인민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과 민족의 장래발전에 열려지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가를 체험할수 있었으며 민족의 유산인 금강산의 황룡경승에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뜻깊은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한데 대해 언급하고 조국을 떠나 38° 선을 넘어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은 하루빨리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 일념에 차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이 력사적인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있으며 자동차행진이 조국의 통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강하시길 것과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길 것을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 미래과학자거리를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자

###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진행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미래과학자거리가 건설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중에 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500세대에 있고 봉사시설도 두루 갖추어진 웅장한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세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 주신데 이어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이 심장의 피를 끓이며 떨쳐나선 인민군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번 건설에서 또다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의 깃발을 높이 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번 건설에서 또다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의 깃발을 높이 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번 건설에서 또다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의 깃발을 높이 들고있다.

모임에서는 현영철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환기, 군관 한신일, 사관 류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과 불거움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위용을 온 세상에 알릴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내외부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하여 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이 영예로운 임무를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이번 건설을 통하여 조선속도의 창조자, 시대를 주름잡아 달리는 기수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불러주신 보람찬 전투장으로 달려온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고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일념으로 용감처럼 앞장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미래과학자거리를 신군사대를 대표하는 본보기거리로 일떠세우시어 먼 후날에도 우리 인민들이 군인건설자들의 애국의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뜨겁게 추억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지휘관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외치며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잡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력량과 기세를 합력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안전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능공대렬을 늘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건설물의 질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해나가기에 언급하였다. 자체보장을 맡은 일군들은 전선에서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세멘트와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리브르빌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리 봉고 응딤바카하 나는 가봉독립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적친분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활력을 띠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8월 17일 평 양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박사 수셀로 밤방 유도요노카하 나는 인도네시아독립 6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8월 17일 평 양

#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은 값 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발맞추어 추종해나가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에 따라 고안된 북침전쟁연습이다.

올해에 강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맞춤형억제》라는 기간적인 외피를 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그것은 또한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도발》을 구실로 임의의 시각에 《국지

적인 전면전》에 불을 지피기 위한 모험적인 실전행위이다.

더우기 이번이 강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근 70년 강점력사를 한정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상전과 주주의 새로운 공모결탁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들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피뢰책공공군의 편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되고있으며 핵타격수단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이 대거 투입되고있다.

벌어진 사태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위기일발의 협박한 전쟁상황으로

치닫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쟁평신자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인 대응방침을 내외에 밝힌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맞춤형억제 전략》을 실천에 적용하는것으로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해온 이상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것을 다시금 천명한다.

우리가 때리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구실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크고작은 본저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재더미가 되어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그렇게 만들 만단의 준비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것

을 숨기지 않는다.

이번 침략전쟁연습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시도가 명백해지고 괴뢰당국의 친미사대적인 배후배축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조건에서 그 모든것을 단연코 끝장내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강력한 물리적공세가 현수 휘하에 전개되는것을 서슴없이 공개한다.

더이상 방관시할수 없는것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변함없는 영구강점시도이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현대판 《을사오적》 들인 괴뢰당들의 흉악한 역적행위이다.

강점자들과 역적무리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증오와 분

노가 어떤것인가를 정의의 총재로 보여 주자는것이 우리 혁명무력이 선택한 결심이다.

전쟁연습을 《정제화》, 《년례화》하는것으로 《제체전복과 강점》, 《홍수통일》의 불순한 야욕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대응도 정제적으로, 년례적으로 더욱 강도높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정제화》, 《년례화》의 구실밑에 우리 민족모두에게 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천추의 한을 덧쌓고있는 그 모든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외적 우리 혁명무력의 정제적이며 년례적인 군사적대응으로 죄 많은 침략자, 도발자들과 끝까지 결산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다.

우리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기와 제안에 극도로 위험한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처사는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잘못 택한 시기에 잘못 정한 장소에서 잘못 고른 상태에 대해 잘못 저지른 전쟁도발이었다고 피터지는 후회를 늘어놓은것을 지난 조선전쟁때의 과거일로만 보아서 절대로 안될것이다.

영원한 승자와 참혹한 패자를 가르는 운명적인 선택의 권한은 오직 우리 혁명무력에만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제103(2014)년 8월 17일  
평 양

#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자

## 혼연일체의 초석이 되어

## 명진단

### 평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은 평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불태우려는 대저지나가기 위하여 혼연일체의 초석이 되어 투쟁한 전배기충신들이었다.

위대 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불태우려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고 자신의 신념으로 당을 받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순결한 넋과 투쟁기풍을 당사업실천에 그대로 구현해나가기 위해 분발하여 사업하고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잊지않고 마음으로 받들도록 하기위해 당사업의 회의를 총정리하고있다.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간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평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는 세기적인 전변을 놓고 원수님의 위대성을 감동깊이 해설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천하제일위인인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의 대고조를 수행경사승의 불타는 일념속에 힘써가다그쳐나가고도 하고있다.

주제41(1952)년 5월 10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배의 나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몸소 밭 세앗을 뿌리신 역사의 날이다.

군당위원회는 이날을 맞으며 축하무대를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을 더욱 억척같이 세우주었다.

그날 축하무대에서 노래 《뿌리가 되자》를 절절히 부르던 군당책임일군은 준엄한 나날이나 시련의 나날이나 변함없이 쌓여오 위대한 수령님과 당장군님을 받들어온것처럼 알곡종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고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저마다 무대에 달려나와 경애하는 원수님을 향하여 받들어나갔다고 화답해나갔다. 원화리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훌륭한 농사작황을 펼쳐놓는것으로 새 지구의 결실이 빈발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나가기 위하여 혼연일체의 초석이 되어 일해나

는 뼈를 깎아서라도 주민들이 바라보는것은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일군들을 이렇게 깨우쳐준 군당책임일군은 주민들의 살림집을 빠른 기간에 일떠세우는 문제를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공장, 기업소들에 살림집건설을 위한 분담조치사업이 이루어지고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친부모, 친형숙의 심정으로 일군들의 생활에 필요한 내외의류들을 비롯한 생활수품들을 선천으로 안고왔다. 이것이 불꽃이 되어 주민들에게 안락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20일여에는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하게 되었다.

실생활을 통하여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깨부르느라 주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평도를 총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으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불태웠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대중속에 들어가 혼연일체의 초석이 되어 투쟁함으로써 핵무기보다 뛰어난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적극 추동해나가고있는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본말만 한다.

본사기자 손영희

라고 우는것이라고 웃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원들속에 우둔한 어머니가 기저귀가 젖어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젖을 먹이는것과 같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일하고있는 일군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속적인 이야기로 하신 그 가르치심은 오늘 우리 당원들속에 사람과의 사업에서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에로부터 친길 목숨은 아야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속에는 친길 목숨은 몰라도 한길 사람속은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명진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의 정치적성명을 보호하기 위한 당원들의 본분이며 우리 당의 목소리가 대중의 심장속에 울려대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 당원들은 사람들의 사업을 명진단을 내리고 옳은 처방을 내리는 과정으로 일관시켜야 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대회에서 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만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해도 매 사람의 머리를 손꼽듯이 들여다보아야 하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만가지의 옳바른 처방은 만가지의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한다.

우리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명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간다면 당사업에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다.

모든 당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교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사상감각과 정서, 지향과 요구를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높은 실력과 정 책적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성명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명운을 신중하게 대대배반 재보고 한번 선택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전사자가족을 위해 세운 긴급대책**

팍산군량정사업소 수매원 김영훈동무는 성스러운 조국보위의 길에 애를 바친 전사자가족이다.

초급당비서 김동진동무는 전사자가족들에게 일을 잘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단히 체력질하며 애쓰는 그에게 언제나 격려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그와 자주 대화를 하였다. 조국보위의 길에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전사자가족 부끄럼이 없게 우리 당의 선군혁명평도를 앞장에서 만들어가는 선봉투사가 되자고 힘을 주고 고무해주었다.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것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이해주는것이 중요하다. 맹감을 풀이해주는 등 친혈육과도 같은 정을 아낌없이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살림집건설에 나갔던 초급당비서는 어떤가 모르게 김영훈동무의 얼굴색이 밝지 못함을 느끼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알아보니 그럴만 한 까닭이 있었다. 그는 장마로 하여 그의 집이 적지 않게 피해를 입었는데 보수할 걱정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지체없이 긴급대책이 세워졌다. 그의 집을 찾아 피해정형을 일일이 알아본 지배인 김일학동무와 초급당일군은 무릎을 마주하고 앉았다. 두 일군의 생각은 한쪽으로 흘렀다. 이왕 손을 댈바치고 원래

의 집을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주자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옹호하는 길이며 자기들의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일군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치밀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세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자재들을 가지고 찾아가 빠른 기간에 집을 일떠세우는데 도와주었고 도로보수장제도를 세워주었다. 당세로의 당원들이 제 집일처럼 펼쳐나갔다. 그리하여 김동무의 집은 원래와는 대비도 할수 없을 정도로 더 멋있게 건설되었다.

두 일군이 세운 긴급대책, 그것은 전사자가족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언제 어디서나 핵심적역할을 수행할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하였다.

실속있는 담화가 얼마나 큰 실효를 나타내는가? 원산시상수도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었다.

위대 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담화는 사람들의 사업의 기본형식이며 가장 효과적의 교양방법입니다.》

3년전 어느날이었다. 강 임명된 초급당비서 리성준동무는 어느 한 초급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설비관리원 조동무말입니다. 요즘 일에서 마력을 내지 못하고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품운반에 필요한 운수기계를 수리할 과업을 주었는데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 담화를 해보

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초급일군은 요즘은 왜 그런지 그가 사업소 일에서 실패를 잡지 못한다것이었다.

초급일군을 돌려보낸 후 초급당비서의 생각을 들었다. 우선 조동무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지배인 장창식동무부터 만났다. 지금껏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수년동안 자기 맡은 일을 잘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양수설비들의 속내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것이였다. 초급당비서는 조동무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도 만나보았다.

《보기 드문 인제입니다.》

《사업소의 그 손때가 묻지 않은 설비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조동무가 사업소를 위해 알뜰모게 해놓은 일들을 빠짐없이 들려주는것이였다. 자못 기뻐했다. 하지만 초급당비서는 그와 만나니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분명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잖나!》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조동무가 맡았다는 트랙토르의 수리정형을 알아보았다. 말이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만드는 품이다보니 일에서 마력을 내지 못했었다.

《초급당비서동지, 전 정말

침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돌입된 황해남도 2려단 일원들은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재령군대대는 전투력있는 단위를 결성용위할 각오높이 분분초조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갔다.

후방사업을 맡아보는 김광철동무도 당원으로서의 자기 몫을 스스로 찾아하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여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발전기건설설의 틀과구가 열렸다. 이것은 대대전투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발전기건설설과제를 앞장서 수행한 대대에서는 늘 이렇게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승리를 펼쳐가고있다.

다시금 자각시켜주는 그의 호소에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대장 리명철동무가 돌격전을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순경

철, 고성남동무들을 비롯한 당원들은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재령군대대는 전투력있는 단위를 결성용위할 각오높이 분분초조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갔다.

후방사업을 맡아보는 김광철동무도 당원으로서의 자기 몫을 스스로 찾아하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여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발전기건설설의 틀과구가 열렸다. 이것은 대대전투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발전기건설설과제를 앞장서 수행한 대대에서는 늘 이렇게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승리를 펼쳐가고있다.

다시금 자각시켜주는 그의 호소에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대장 리명철동무가 돌격전을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순경

본사기자 장철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 창조제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룡림리상수도사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철

평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명진단은

## 품을 들여 만날 때

### 원산시상수도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에, 두번이나 만났습 니다.》

이렇게 말하며 초급일군은 요즘은 왜 그런지 그가 사업소 일에서 실패를 잡지 못한다것이었다.

초급일군을 돌려보낸 후 초급당비서의 생각을 들었다. 우선 조동무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지배인 장창식동무부터 만났다. 지금껏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수년동안 자기 맡은 일을 잘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양수설비들의 속내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것이였다. 초급당비서는 조동무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도 만나보았다.

《보기 드문 인제입니다.》

《사업소의 그 손때가 묻지 않은 설비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조동무가 사업소를 위해 알뜰모게 해놓은 일들을 빠짐없이 들려주는것이였다. 자못 기뻐했다. 하지만 초급당비서는 그와 만나니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분명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잖나!》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비서는 조동무가 맡았다는 트랙토르의 수리정형을 알아보았다. 말이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만드는 품이다보니 일에서 마력을 내지 못했었다.

《초급당비서동지, 전 정말

본사기자 김향관





